

완치되는 그날까지 민수돕기
모금운동 계속됩니다

민수를 도와주세요. 현대불교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돕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민수가 완치되는 그날까지 각 사찰 단체, 개인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문의 나눔의 손잡기 (02) 2004-8234
도움 주실 곳: 927-12-838466(농협 예금주 김형찬), 016-547-8672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범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범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 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한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기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봉사 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제보해주시요.

나눔성금 보내주신 분

홍영순 500,000원 윤선애 10,000원 이창근 10,000원
원 우진균 30,000원
총누적금액 41,104,940원

“작은 정성이 도움 될까요?”

본지 독자 이웃돕기 문의전화 잇따라
생필품·치료비 지원 등 정성껏 동참

“생필품이 부족하다니, 놀랐습니다. 제 조그만 정성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6월 10일, 김미향씨(35)는 “현대불교”를 읽다 아직도 어렵게 사는 이웃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먼저 본사로 전화를 걸어왔다. 김씨는 ‘복지시설에 생필품이 모자라요(본지 526호 1면 기사 참조)’ 기사를 읽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 복지시설에서 생필품 마련 때문에 고민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 김씨는 “현대불교”가 펼치고 있는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을 통해 갈수록 많은 ‘손’들이 이웃의 손을 잡고 있다. 나누는 삶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 지면을 통해 소개되는 사연을 접하고 직접 성금을 입금해 주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으며 물건을 나누거나 꾸준한 만남을 통해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불자들이

해왔다. 이미 많은 복지시설에 물품후원을 해왔다는 윤씨는 “일회성 관심이 아닌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며 본사에 어려운 아동보육시설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 했던 것. 윤씨는 본사가 소개한 한 어린이 보육 시설에 인명으로 세수 비누를 꾸준히 보내고 있다. 윤씨의 비누 보시를 받은 보육시설 관계자는 “받은 비누를 아주 소중하게 쓰겠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현대불교”가 펼치고 있는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을 통해 갈수록 많은 ‘손’들이 이웃의 손을 잡고 있다. 나누는 삶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 지면을 통해 소개되는 사연을 접하고 직접 성금을 입금해 주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으며 물건을 나누거나 꾸준한 만남을 통해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불자들이

도 늘고 있다. 현재 부산대학병원에 입원 중인 ‘백혈병 민수(4) 돕기 운동’은 민수가 완쾌될 때까지 보도와 모금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을 통해 한 생명을 살려내고자 하는 취지가 많은 불자들의 관심으로 점점 빛을 발하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불자는 “아직 어린 아이가 무서운 병에 걸렸는데 부모의 심정이나 오죽하겠느냐”며 작은 금액이나마 민수의 치료비에 보태주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또 다른 불자는 “아이와 아버지를 직접 위로하고 싶지만 그보다 후원을 하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후원 방법을 물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지현 스님은 “어려운 이웃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받은 공덕을 사회로 회향하며 살아가려는 자세”라며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에 더 많은 불자들이 호응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장병들과 함께
장애인 가족나들이

시흥장애인 종합복지관

“나라 지키는 장병들이랑 같이 보니 더 재밌는걸!”

바깥나들이에 나선 재가 장애인들이 6월 9일 서울대공원에서 펼쳐진 물개쇼를 보며 즐거움에 흠뻑 빠졌다.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상호)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주관으로 개관 1주년을 기념해 서울대공원에서 ‘재가장애인 가족나들이’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재가장애인인과 가족 20명, 그리고 육군 80정비대대 자원봉사자 9명이 참여했다.



6월9일 오랜만에 서울대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선 시흥장애인복지관 이용자와 군 장병들.

행사는 재가장애인이 현장학습을 통해 사회 적응을 직접 체험하고 사회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오랜만에 외출을 한 장애인과 가족들, 군인들은 서울대공원에서 동물원 견학 및 돌고래·물개쇼를 관람하고 아릅

다한 장미꽃이 활짝 핀 장미원을 산책하며 향기로운 나들이를 즐겼다.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 김성원씨는 “장애인들이 모여서 함께 나들이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했는데 이렇게 꿈이 실현돼 무척 뿌듯하다”며 대공원 산책의 기쁨을 표출했다. 김강진 기자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우리는 봉사가 언제나 즐겁다니까요” 삼전복지관 급식봉사팀은 화요일마다 봉사의 즐거움을 만끽한다. 사진은 6월14일 봉사모임.

삼전복지관 급식 봉사팀

“봉사하니 몸도 건강해져요”

“재밌고, 즐겁고, 내 몸에도 좋고, 안 좋으면 나오네요, 어디.”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서 운영하는 서울 삼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선재), 화요일마다 복지관의 점심식사를 담당하고 있는 봉사자들이 6월 14일에도 어김없이 복지관으로 발걸음을 했다. 이리기를 벌써 4년에서 10년, 7명의 봉사자들은 지겹지 않다고 묻는 사람들에게 “내가 안 좋으면 못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석촌동 불광사(회주 지홍)에서부터 인연을 맺은 봉사자들이 사실 처음부터 봉사에 뜻을 둔 것은 아니었다. 가장 먼저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순연(48) 보살의 경우, 11년 전 우연히 읽은 한 권의 책 때문에 삼전복지관과 연이 닿게 됐다. 그 당시 지 보살은 ‘봉사활동’에 대한 뜻은 있었지만 막상 하려고 보니 막막하기만 했다. 그 때 접한 것이 봉사활동 체험수기를 담은 책이었다.

“이거다. 나도 뭔가 하자 싶었죠. 처음이요? 아유, 당연히 힘들죠.” 그렇게 혼자서 봉사활동에 대한 원

을 세우고 굳은 마음을 먹고 가까운 삼전복지관을 찾았어도 처음에는 힘들었다. 그러다 차츰 익숙해지고 복지관 직원들과도 서먹한 기운이 없어져 갈 때 쯤 되자, 지 보살은 혼자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다른 도반들에게 못내 미안해 함께 하자고 제안하게 된 것이다.

“아 글썽, 우리 몰래 좋은 일 하러 몇 년을 다녔는지 몰라요.”

함께 10년 여 동안 봉사활동을 해 온 최길환(58) 보살은 가장 먼저 지 보살을 따라나섰다. 이제 복지관에서 ‘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봉사 활동에 매진하겠다는 최 보살은 복지관만 오면 “아프면 허리까지 낫는다”면서 스스로도 봉사 효험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말한다.

봉사 하다보니 좀 더 부지런해졌고, 무엇이든 하나 더 하게 되는 자신들의 변화에 즐거움을 느끼는 불광사 보살들. 몸이 성할 때 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서원하는 마음이 있기에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독거어르신에게 전화 드리세요

삼전복지관에는 물품 후원도 많이 필요하지만 지역 저소득·독거어르신들과 1:1 결연을 맺을 수 있는 ‘가족봉사단’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삼전복지관 불광사 보살들은 “1주일

에 한 번 정도 어르신들에게 안부전화라도 드리면서 꾸준히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족들이 나타나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02)421-6077

지장사 중창불사 큰 스님 초청 대법회

지혜(智慧)와 자비(慈悲)가 넘치는 부처님의 도량 중구 대흥동 수도산 지장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고승대덕 큰스님을 초청 대법회를 봉행하오니 감로수와 같은 큰스님의 법문을 들으시고 실천(實踐)하여 날마다 기쁨과 감동 받으며 보람으로 사는 삶이 되시길 바랄 합니다.
수행(修行)과 교화(教化)는 불자(佛子)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불교(佛敎)를 바르게 알면 인생(人生)이 즐거워지고 행복(幸福)해 집니다.마음 크게 내어 고승 초청 대법회에 동참하시어 성불의 인연 공덕을 심으시고 지장사 중창불사 원만 회향을 발원하며 기도도량 포교도량으로 지역의 중심도량이 되도록 발원 합니다.

- 일 시: 불기 2549년 6월 21일(음 5월 15일) ~ 6월 24일(음 5월 18일)
오전 10시(4일간)
- 장 소: 대전 퇴미고개 수도산 지장사 ☎ 042)226-7822
- 초청법사: 암도 큰스님, 정무 큰스님, 정락 큰스님, 보광 큰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수도산 지장사 주지 명안